

# 2010년 예산안 분석(1)

글 : SERI 강성원 수석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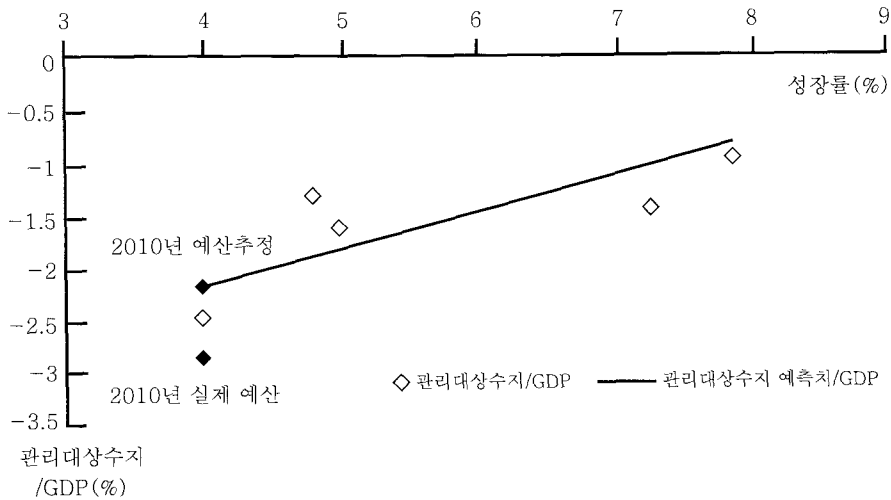
## 1. 예산지출 규모

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팽창적 재정운용 기조 유지

- 2010년 예산 총지출은 291.8조 원으로 2009년 본예산 총지출 284.5조 원보다 2.5% 증가하여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32.0조 원, 국가채무는 407.1조 원에 달할 전망
-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.1% 감소한 287.8조 원에 그쳐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9년 본예산 24.8조 원에서 32.0조 원으로 증대
  - 2009년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총지출이 3.3% 감소하고 총수입이 2.9% 증가하여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51.0조 원에서 32.0조 원으로 감소
-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서 국채가 30.9조 원 추가 발행되는 등 국가채무가 증대하여 GDP의 36.9%에 이를 전망
- 총지출 규모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관리대상수지는 경제위기 이전의 5년간 (2004~2008년)보다 팽창적인 기조를 유지
  - 총지출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 5년간인 2004~2008년 총지출 증가율을 하회하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동기간 평균을 상회
    - 2004~2008년 예산지출은 연평균 7.0%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지출 증가는 2.5%에 그침
    - 그러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의 -2.9%로 2004~2008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평균인 -1.3%의 2배 이상에 달함

- 성장률을 고려할 경우 2010년 예산 관리대상수지 적지는 2004~2008년 예산보다는 팽창적인 성격을 유지
- 2004~2010년 예산 관리대상수지를 성장률에 회귀시킨 결과 2010년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-2.2%로 추정되었으나 -2.9%로 편성되어 과거 추세보다 팽창적인 성격을 유지

[ 성장률과 관리대상수지의 관계 회귀분석(2004~2010) ]



**추정 결과**

$$\text{관리대상수지/GDP(\%)} = -3.797 + 0.387 \times \text{성장률(\%)} \\ [-5.848] \quad [3.325]$$

결정계수 = 0.689    표본 수 = 7

주: 1) [ ]안은 t값

2) 2008년 7K지 성장률은 한국은행 자료

자료: 기획재정부, "국가재정운용계획" 각 연도: 기획재정부(2009. 9. 28), "민생안정·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·기금안 주요내용". 보도자료: 한국은행, ECO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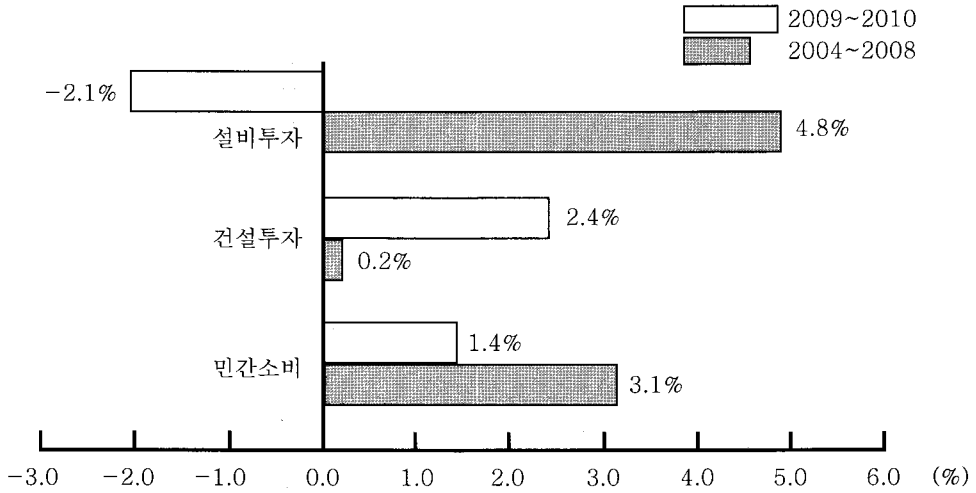
**민간 수요 회복이 더디어 팽창기조 유지가 필요한 상황**

- 2009년 2/4분기 이후의 내수 회복세는 2010년에도 지속되나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 위축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부족할 전망
- 수증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2009~2010년 평균증가율은 각각 연 1.4%, -2.1%에 그쳐 2004~2008년 평균 3.1%,

4.8%을 하회할 전망

- 재정정책의 효과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4-2008년 0.2%에서 2009-2010년 평균 2.4%로 증가

[ 경제위기 전후 내수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 비교 ]



자료: 황인성 외(2009). "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" 삼성경제연구소: 한국은행, ECOS.

■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하겠으나 국내경제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2009년보다 축소될 전망

- 2010년 수출 증가율은 12.2%, 수입증가율은 17.8%로 전망되어 무역수지 흑자가 2009년 308억 달러에서 162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
-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1.2%에 그칠 정도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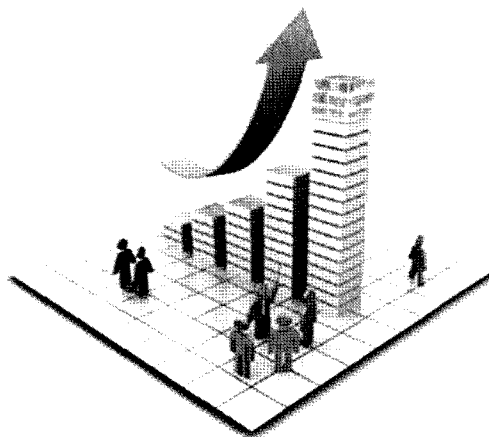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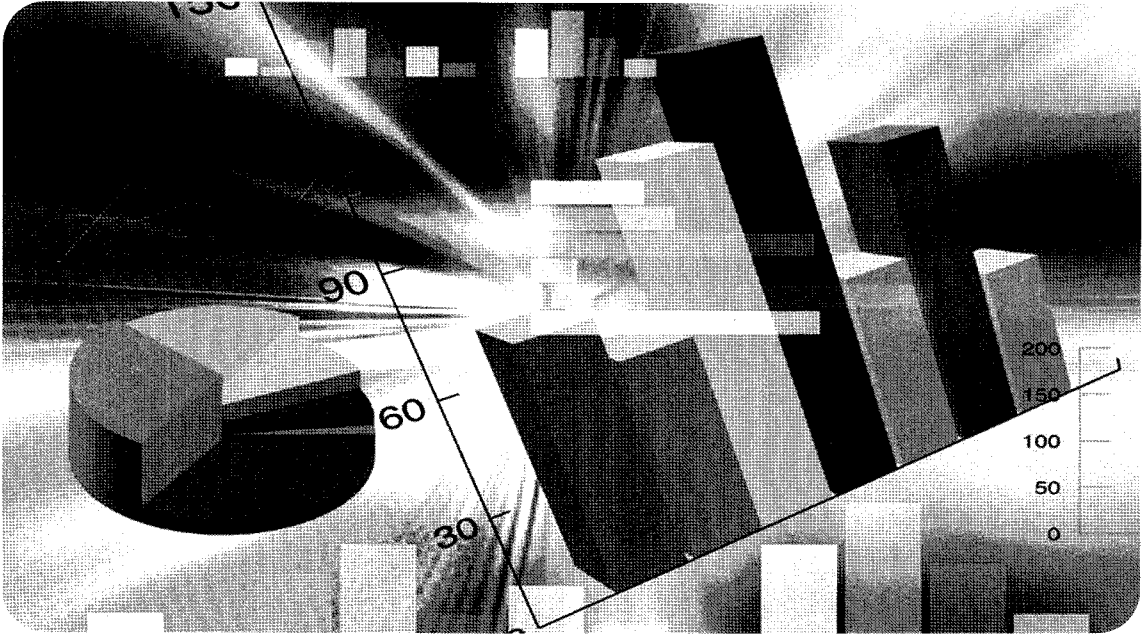
■ 민간의 자생적 내수 회복이 더디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팽창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

## 2. 국가채무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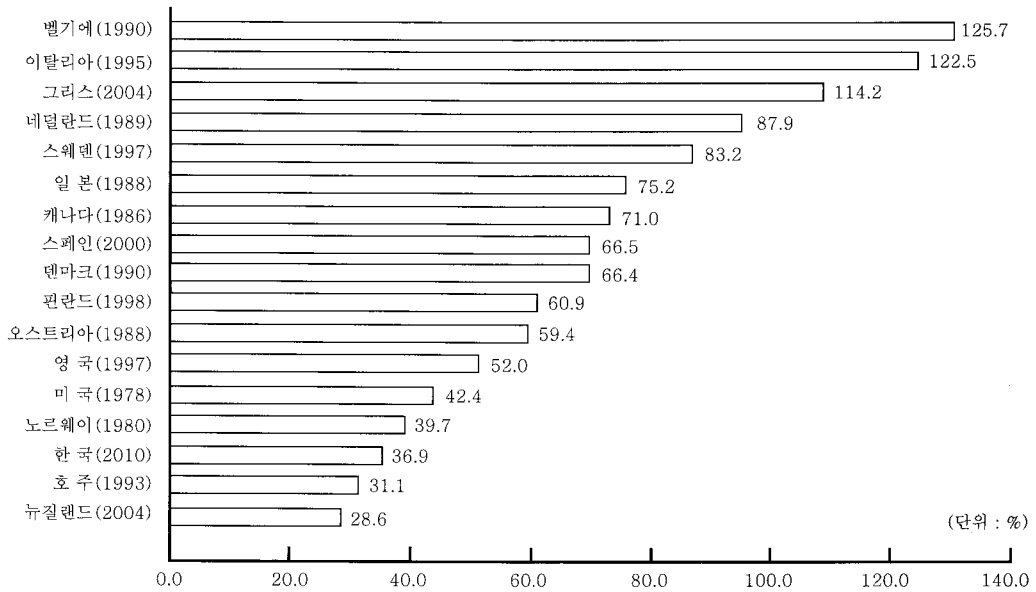
국가채무는 증가하나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

-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과거 추세에 비추어보면 확대될 전망이다. OECD 국가들의 부채 증가 속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측
  - 2004~2008년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는 21.6%에서 30.1%로 8.5%p 증가했으나 2009~2010년 2년간 6.8%p 증가할 전망이다
  - 2009~2010년의 2년간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78.7%에서 100.2%로 21.5%p 증가하여 한국보다 3.2배 큰 폭으로 증가
- GDP 대비 국가채무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,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해 낮은 수준
  -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6.9%인 반면,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100.2%로 한국의 2.7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
  -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007년 수준이었던 시기에 선진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평균 70.4%로 2010년 한국 국가채무의 1.9배에 달함
-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
  - 경제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하반기에도 국제신용평가 3社(Moody's, S&P, Fitch)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
    - Fitch社는 2008년 11월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불안정(Negative)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최근 경기 회복을 반영하여 9월에 안정(Stable)으로 재조정
    - 2009년 9월 한국증권거래소가 FTSE 지수(FTSE Global Equity Index series)에서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는 등 국제금융 시장에서 위상 제고





[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과 유사한 시기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]



자료 : 1인당 국민소득 자료는 Penn World table 6.3.

([http://pwt.ecn.upenn.edu/php\\_site/pwt\\_index.php](http://pwt.ecn.upenn.edu/php_site/pwt_index.php)); 국가채무 자료는 Source OECD, Statistics

## 국가채무 증대로 인한 국축효과는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완화가능

### ■ 국가채무 발행 증대로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시장금리도 동반상승하여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증대

- 2009년 2/4분기 이후 국고채 이자율이 반등하고 3/4분기 이후에는 회사채 금리와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반등하여 시장이자율이 점차 상승 중
  - 2009년 3/4분기의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은 연리 4.30%로 경제위기 이전인 2004~2008년 평균 4.68%에 근접
  - 2009년 3/4분기 회사채 이자율은 연리 5.59%로 경제위기 이전인 2004~2008년 평균인 5.21%를 상회

[ 국고채 이자율 및 시장 이자율 동향(연리) ]

	2004년 1/4 ~2008년 2/4	2008년 3/4	2008년 4/4	2009년 1/4	2009년 2/4	2009년 3/4
국고채 *	4.68	5.85	4.68	3.64	3.89	4.30
회사채 * *	5.21	7.19	8.29	6.85	5.35	5.59
대출금리 * * *	6.12	7.29	7.40	5.66	5.43	5.57

주: 1) \* 국고채: 국고채 3년물

2) \* \* 회사채: 장외 3년, AA-

3) \* \* \* 대출금리: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, 2009년 3/4분기는 7-8월 평균

자료: 한국은행, ECOS.

- 2010년 회사채 이자율은 2009년 6.0%보다 높은 6.4%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신축적 통화정책으로 구축효과 완화를 고려할 필요
  - 팽창적 통화정책은 과도한 물가상승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

▶ 다음호에 계속